

지역중심 청소년육성 모형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경기도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최 현**
 연구자 : 천 정 웅
 이 종 원
 임 상 숙

- I. 서 론
- II. 조사개요와 표본의 특성
- III.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행동
- IV. 사회자원과 서비스실태
- V.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방안
- V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실태조사는 지난 60년대 이후 전개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 속에서 사회적 해체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구체적 주거환경이며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의 기능

과 역할의 회복이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중심의 청소년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시도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전통적인 가정의 권위회복을 위해 가정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제도교육의 결함에 있다고 보고 수차례에 걸친 교육제도의 개혁도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며 그것이 또한 우리사회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노력에서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측면에 주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

*이 논문은 본원의 1989년도 공동연구사업인 “지역중심 청소년육성 모형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경기도 안산지역을 중심으로—”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최 현(연구위원), 천정웅(주임연구원), 이종원(주임연구원), 임상숙(연구원)임.

사회의 기능회복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 결속시킴으로써 고도의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해 온 생활의 장이었다. 이러한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혈연적 가치에 얽매인 가정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기관에서 결여되기 쉬운 사회적 삶의 방식을 함양시키는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점차 간과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갖 “유해환경”으로 가득 찬 방치된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보호를 위한 격리”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그들의 생활공간은 오직 가정과 학교로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기능회복은 결코 봉건적인 공동체적 가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산업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교육기관의 영향력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는 비행과 탈선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조건—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책임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주체는 성인들로서 청소년들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성

장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문제청소년과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단속의 사후적, 대중적 처방에서 벗어나, 일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단체와 시설들이 그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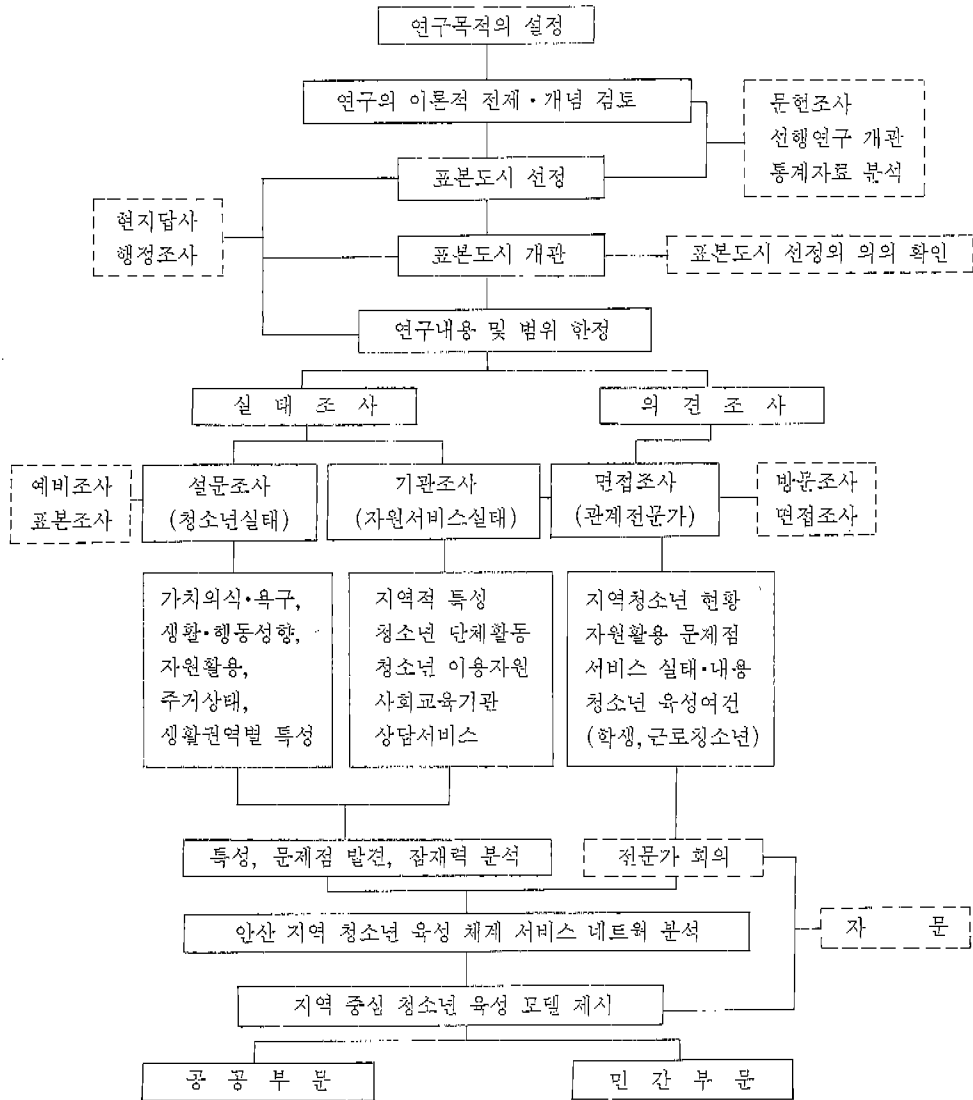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 조직·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은 간과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단체들은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결여로 말미암아 많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현상을 빚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원과 서비스운용의 구심점을 중앙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그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재편성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경기도 안산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성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의 운용실태와 그 문제점을 진단한 뒤, 이들

[그림 1]

연구과정체계도



자원과 서비스의 합리적인 재편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4가지 방법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와 방향제시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찾았다. 연구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현지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자들은 우선 표본도시인 안산시 일원을 현지답사하여 지역사회로서의 특성을 개관하고 조사대상 지역으로 안산을 선택한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조사는 주로 지역사회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반 사회적 가용자원과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행정조직과 육성체계에 관련된 자원으로 안산시청, 안산시 교육청, 안산경찰서 등의 청소년 관련부서의 업무내용과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조사했으며,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청소년단체의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조직 현황 및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시설, 문화활동공간을 알아보았다.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실시기관으로 청소년 상담기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방문 현지조사하였으며 이밖에 유관기관으로 반월공단, 민간사회단체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현지의 협조로 폭넓게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지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안산지역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학생청소년과 근로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집단유형별, 거주생활권별,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 표집계획에 따라 연구원과 현지조사원이 대상 학교와 기업체를 방문하여 집단 또는 개별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은 안산시 소재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한 학급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양과정에서 참여한 근로청소년 59명 등 총 16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의 실시를 거쳐 최종확정하였는데 질문내용, 언어구성, 반응형식 등에 유의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방법론적 접근은 현지 청소년관련 업무 공무원과 단체활동지도자, 육성위원회 위원, 시설·기관 운영자 등 청소년관계 전문가와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도구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면접조사표로서 17개 문항에 대해 구체

적 진술형과 단답식이 혼용되어 답변하도록 작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와 면접자의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심층 면접대상자 이외에 대해서는 사전 배포 회수의 방법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와의 질의 응답으로 실시되었는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내용을 보다 깊이있게 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모형 개발에 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추진과정은 앞면의 [그림 1]과 같다.

3. 연구의 내용과 이론적 전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표본도시의 특성으로 경기도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태환경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다. 지역내 청소년들의 생활거점이자 교육의 장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치의식과 욕구 및 성향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연구의 중심적 대상인 지역청소년들은 연령별, 집단유형별, 근린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들의 생활과 활동양식을 실태파악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청소년 육성 여건으로 지역사회내에 있는 제반 사회적 가용자원들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되고,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자원의 현황과 이용실태 및 자원상호간의 연결망과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대해 조사 분석한다.

넷째, 자원과 서비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의 효과적인 활용도

제고방안과 개선대책을 모색해 본다. 지역 중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 가용 자원과 서비스의 합리적인 재편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중심”의 개념은 청소년의 주요 사회화기구인 지역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준거한 지역사회 중심 *community based*의 의미와 지역단위 지향 *community level oriented*의 두가지 함축성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의 현실적 상황”이란 지역사회의 발전과정적 성격과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청소년의 생활권이자 사회권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환경과 시설·제도 등의 체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활동양식, 행동의 전반적인 상호관계성 및 그 사회적 양상”으로 인식한 개념이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라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사회화되고 있는 연령층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건전육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청소년의 사회화는 개인과 집단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가족, 동료집단, 지역사회, 매스미디어 등 수많은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사회화 기구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사회라는 전체적 구도속에서 총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구체적 실체로서의 지역의 기능회복이란 측면은 상당부분 간과되어 왔다. 지역사회의 사회화기구로서의 영향력은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생활거점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는 교육의

장이란 측면이다.

첫째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구체적인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다. 지역사회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물론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생활의 장소이고 인간형성의 장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어떤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넘는 일이 거의 없다. 학생이나 근로 청소년, 모든 유형별 집단에 있어 가정과 직장, 가정과 학교를 잇는 생활권역을 크게 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바로 그들이 주민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발달하는 준거환경이다. 청소년문제, 유해환경, 퇴폐풍조 등의 제반 현상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교제하며 사회규범을 익히고 협동과 양보 등의 덕목도 함양한다. 정서의 순화와 충동의 억제도 배우고 가정, 학교, 그리고 부모가 자신들의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도 체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체는 그 반대이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가정이나 학교에 있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사회환경 또한 불건전한 성인문화의 저급성으로 오염되고 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에의 관심의 회귀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건전한 사회심리적 성장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놀이터와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회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듯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마을 근린관계의 회복 내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가 교육의 장이 된다는 것

은 지역사회는 곧 청소년들의 관습과 태도, 가치의식을 길러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형태 및 문화가 학교교육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농촌과 도시의 청소년들은 각기 그 지역사회의 내·외적 환경의 상이성으로 인해 행동양식의 동일성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지역사회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행동 즉, 말하는 것, 웃어 입는 것, 성인을 대하는 예절 등 모든 면에 있어 영향을 주는 데 지역사회에 따라 환경적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는 제도, 정신, 문화풍도, 전통성, 근대성, 변동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그 특성이 각기 다르다.

어느 지역사회는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필요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이 경우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합류는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칫 청소년들의 가치의식과 행동양식을 바란직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계급, 종교, 교육 등의 차이 또한 지역사회 사람들의 상호협조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오늘날의 우리 지역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사회해체적 성격을 강하게 노정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시문제”나 “도시화의 문제”는 지역사회 해체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도시화로 인한 지역의 해체현상은 지역사회 발전이 근대화 또는 발전의 일측면으로 그것이 지역사회문제로서 청소년 문제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청소년 문제의 확산은 지역의 유해

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분위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점에서 청소년 육성의 과제는 기성세대와 전체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기능의 회복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일찌기 선진각국에서도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많은 계획과 연구를 수행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역중심활동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지만, 비행 청소년의 선도와 예방이란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비행방지를 위한 지역중심 활동 계획을 그 본질상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경찰이 주체가 되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가를 포함하는 지역계획의 수립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의 개입의 한 방법으로 소집단 가족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내 소집단 거주제”에 관한 논의나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문제, 향락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계몽 등 사회적 비행 문제점에 대한 시민운동과 시민의 협조를 얻어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에 의한 단위 거주지역별 방범감시망의 구축활동 등에 관한 분석연구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논의는 사회 통제적 시각에 입각한 지역의 역할 모색이란 측면에서 지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중심 비행방지 활동계획은 아직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 연구나 이에 입각한 계획의 수립과 적용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를 연구의 개념적 전제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순전히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을 역설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이며 연구내용의 구체적 논의 전개를 위한 이해의 준거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II. 조사개요와 표본의 특성

1. 표본도시의 특성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과 개념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목적의 설정에 부합되는 표본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크게 주저하지 않았다.

지역중심의 개념을 어느정도의 규모에 둘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중소도시를 그 대상으로 한정된 이후 표본도시는 쉽게 안산시로 정해질 수 있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의 가치의식과 생활양식을 시계열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제반 가용자원과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에 있어 경기도 안산시는 최적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산은 1988년 말 현재 상주인구 171,420명, 총면적 73.92km²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도시로서 1976년부터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신흥공업도시이다. 신도시 개발 이전의 안산은 농토와 염전 그리고 야산으로만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오지였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과 어업이

전부였으며, 교통수단은 일제시대에 소금운반을 위해 부설되었던 수인선 철도와 시외버스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던 1977년 당시 이 지역의 인구는 19,596명에 불과했으나 80년 이후 해마다 평균 20~30%, 87년에는 33%의 기록적인 인구증가를 보여 지금은 개발 초기에 비해 거의 10여 배에 달하는 인구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농어업 인구가 약 5%에 불과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현대적인 산업도시로 변모하였다.

연구자들이 안산시에 대한 개괄적 성격과 청소년 실태에 대해 가졌던 가설은 한국사회 청소년문화현상의 축소판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우선 단기간의 공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 속에 오늘날의 한국청소년들은 놓여 있다는 인식적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다. 60년대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신흥 공업도시와 계획도시가 형성되었지만 안산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이 연구를 위한 표본도시로서의 의의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산은 공단조성을 통해 단기간에 산업화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이다. 안산은 1976년 신도시 개발의 기본계획이 입안된 지 불과 10여년 남짓한 기간에 전형적인 농촌사회에서 대표적인 신흥공업도시의 하나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추진된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안산지역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즉, 생활양식에 있어서 농업과 공업, 주민구성에 있어서 농민과 공단근로자, 주거형태에 있어서 전통가옥과 현대식 아파트 등—가 상호공존하고 있는 이를테면 한국사회의 제양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종의 “쇼 윈도”^{show}

window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집단의 측면에서도 안산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청소년집단과 그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도시로 간주된다. 안산시는 인구 18만여명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각기 상이한 유형의 여러 청소년층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의식, 욕구와 행동성향의 제측면에서 그들의 실태를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이주민인 점에 비추어 청소년 문제의 양상도 보다 복잡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분위기에 또 이러한 지역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셋째,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타 중소도시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매우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자원과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중소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모형 개발의 구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경우 예상되는 정책적 효과도 타지역에 비해 보다 넓은 적용범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넷째로,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노력으로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연구 대상지역에 대한 가정은 실제 현지답사와 연구내용에 있어 그 의의가 확인될 수 있었다.

표본도시로서의 안산은 서구의 이상적인 도시들을 모델로 하여 지역전체를 도시 계획상에 편입시켜 개발을 추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도시로 평가받고 있는데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여타의 중소도시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안산시의 기본적 특징은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2차산업 중심의 자족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번째로는 주민 구성에 있어서 원주민보다 전입자의 수가 많은 외지인 중심의 공업도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산시의 세번째 특징은 도시 기반시설의 거의 완벽한 정비를 목표로 하는 서구형의 전원도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안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면상으로는 서구형의 전원 도시로서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표면상 확인되는 안산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외관의 이면에는 개발 초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으며 현재는 이러한 제요인들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산시에서는 다른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질적인 구성요소들간의 오랜기간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상대적인 균형상태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상호간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산시는 그 인구구성에 있어 외지에서 전입해 온 청장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등 인근 대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 거주인구의 유동적 성격이 강하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민 구성의 복합적 성격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안산지역 청소년의 대부분은 도시개발 이후 유입해 온 전입자들의 자녀들로 볼 수 있으며 부모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구조 및 주거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권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안산시의 근린생활권역은 1977년 당시 도시설계 기본계획에서부터 각 생활권역별로 독특한 성격을 갖도록 구성되었으며 인접해 있는 5-6개의 근린지구를 합쳐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룸으로써 군자지구, 수암지구, 반월지구의 3가지로 대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안산지역의 3개지구(중앙, 군자, 반월지구)와 안산 이외 지역의 1개 지구로 생활권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각 지구별로 특징적인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지구는 성포동과 고잔동 일대의 아파트 밀집지구로서 이 지역청소년 인구의 74%가 아파트 거주자로 주로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장이 서울인 비율이 4개 지구중 가장 높으며(약11%),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상집단이 많고 고소득, 고학력의 전입자 가구중심의 지구로 볼 수 있었다.

군자지구는 군자동과 원곡동을 중심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심 지구로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4개 지구중 가장 낮다(50%). 보호자의 대부분(62%)이 반월공단과 안산시내에 직장을 갖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위의 중앙지구와 군자지구 이외의 나머지 5개동을 묶어 반월지구로 유형화 하였는데 이 지구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구에 비해 단독

주택 거주율과 4층이하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 토박이 인구의 비율도 가장 높다. 이 지역은 원주민 농가위주의 전통적 생업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외지 전입인구도 가장 적다.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 속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구별 특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현지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으로 근린생활권과 지역사회의 환경이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의 원초적 거점으로서 그들의 생활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크게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설계와 변인의 측정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를 표본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성향 등을 파악하고 지역내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중심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연구의 표집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청소년 연령층 전체가 되어야 하며 전체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청소년 집단의 유형에 있어서도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무직·미진학 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이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 관점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는데 있는 점 때문에 표집대상의 선정에 있어 부분적인 한계를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로 연령면에서는 청소년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층인 9세에서 24세까지

분포되도록 하였다. 둘째, 청소년집단의 유형에 있어서는 안산시의 특성의 하나인 공단과 대학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초·중·고의 10대 청소년 집단과 대학의 20대 학생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세가지로 대별하였다. 셋째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도시적 성격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중앙지구와 군자지구 및 반월지구로 3분하여 표집하였다. 넷째로 대학생 표집의 경우 안산시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근로청소년의 경우 연구관점과 관련하여 복지관 이용자를 포함하여 표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분포는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를 하였으나 근로청소년의 경우 실제 여성 근로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남자의 표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안산시의 인구구성비에 비례하여 연령별, 교급별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학생청소년 표집에 있어서는 안산시내 학교수가 교급별, 생활권역별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점으로 인해 표집설계에 따른 실제 사례조사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표집인원은 표본설계에 따라 1,600명의 설문

지를 배포하였으며 1,511매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4.4%). 회수된 설문지는 조사실시에서 오는 오기와, 분석의 유효성이 없는 것, 무응답이 많은 것 등을 검사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유효사례수는 1,396매였다(회수율 92.4%).

설문지 구성은 청소년의 주요 사회화 기구인 가정, 학교, 직장, 동료집단, 지역사회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양식, 활동욕구, 행동성향, 내·외적환경 및 서비스 내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을 주로 하였으며 학생청소년용과 근로청소년용의 2종으로 구분, 공통질문 95개, 특수질문 15개로 각기 110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조사실시후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과 오류자료 검토작업을 거친 후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처리에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연구문제의 특성에 따라 우선 전체문항에 대한 반응빈도를 알아보고 전체문항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를 교차분석, 백분율과 카이자승(χ^2)값과 자유도 및 유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척도 평균값도 통계적 의미가 있는 일부 문항에는 제시하였으며 특히 행동성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관계에 있다고

〈표 1〉

집단유형별 표집계획 및 유효사례수

(단위:명, %)

집 단 유 형		교급급(연령)	표본수(회수)	실제분석표본수	회수율/유효율
학 생 청 소 년	10대	국 민 학 생	400(396)	376(26.9)	99.0/94.9
		중 학 생	300(298)	289(20.7)	99.3/96.9
		고 등 학 생	300(294)	289(20.7)	98.0/98.3
	20대	대 학 생	250(215)	185(13.3)	86.0/86.0
근로청 소 년		16세-28세	350(308)	257(18.4)	88.0/83.4
합		계	1,600(1,511)	1,396(100)	94.4/92.4

생각되는 변인의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에 의한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인은 응답자의 성별, 집단유형별, 주된 성장지역별, 거주지역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SES의 5가지였으며 이밖에 설문에 따라서는 근무기간별, 가정유형별 등의 변인도 추가될 것이다. 이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변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설정한 것이다.

자료의 분석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유형별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의 5개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령별 의미로도 볼 수 있게 설정된 것이다. 3가지로 구분하면 초중고의 10대 청소년과 대학생의 20대 청소년(여기서는 “학업청소년”으로 용어화함), 근로청소년의 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별 변인은 보호자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3가지 객관적 사항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생활수준의 정도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수준의 4가지 문항의 응답내용을 각각 점수로 환산 변환점수의 합계에 따라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의 3가지로 대별하였다.

(3) 거주지역별 변인은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지리적 구조, 생활권역,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의 정도 및 행동동 분류 등 여러요인을 참작하여 설문응답에 나타난 현 거주동명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고잔동과 성포동을 중앙지구로 하고 군자동, 원곡동, 공단동은 군자지구로, 반월동과 수암동, 선부동, 초지동을 합쳐 반월지구로 그 밖에 안산시 이외지역 거주자를 기타지구로 묶었다.

(4) 성장지별 변인은 연구 관점과 관련하여 안산시를 따로 구분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및 중소도시와 읍·면소재지역을 합쳐 하나로 묶음으로써 4가지로 항목화 하였다.

일반적 분류로는 안산시는 중소도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주요관점의 하나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구성비와 이들간의 반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3. 응답자의 주요특성

여기서는 우선 조사결과와 분석에 앞서 분석과 해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적용되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집단유형별, 주거지역별, 성장지역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적 배경을 파악하고 설문지상 개인적 배경문항으로 제시되었던 주거형태, 주거방법, 종교현황 등을 알아본다. 이러한 배경 변인들은 응답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가치의식과 활동양식 및 행동성향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된 사례수는 1,396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613명, 여자가 783명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중앙지구 거주자가 17.6%, 군자지구 39.1%, 반월지구 22.3% 기타지구가 20.1%를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의 주성장지는 안산시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응답한 것이 27.2%로 전체의 72.8%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인구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으로 구안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집단이 전체의 12.4%, 중집단이 78.7%, 하집단이 8.9%로 중집단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었다. 구성문항별 구체적 반응으로 우선 보

호자의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 이하가 23.2%, 중졸과 고졸이 각각 26.0%, 36.4%이며 대학 졸업 이상은 13.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집단유형별로 보아 대학생집단과 국민학생 집단의 경우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경향이며 근로청소년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은 사무직과 판매직이 34.1%와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련직의 경우도 2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유형별로 보아 근로청소년의 경우 숙련직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적 위세도가 낮은 직군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 평균수입은 전체적으로 50~70만원 정도에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으나(27.2%), 30만~50만원 19.8%, 70만~100만원 22.9%로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입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 잘 산다”와 “대체로 잘 산다”를 합쳐 15.4%, “보통이다” 64.6%, “다소 못 산다”와 “아주 못 산다”를 합쳐 볼 때 2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객관화한 SES반응빈도와 비교해 볼 때 주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주거방법은 자택거주자가 62.7%로 전체응답자의 37.3%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자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기숙사와 자취생활이 각각 20.8%와 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집방법에서 오는 한계점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안산시가 갖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가족이 사는 집의 유형을 보면 자기집이 68.0%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 25.5%, 월세와 친척집이 각각 5.8%와 0.7%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양육과 한육을 합친 단독주택 거주자가 21.9%, 연립주택 29.2%, 다세대 주택 12.0%이며 고층아파트 10.5%, 저층아파트 21.5%의 반응으로 전체 응답자의 32.0%는 아파트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도시인 안산지역의 특성에 유의하여 보호자의 직장위치에 대한 설문도 설정했는데 분석결과 전체응답자의 24.8%가 반월공단을 직장으로 하고 있었으며 공단지역 이외의 안산시내가 26.9%로서 응답자의 55.2%만이 안산지역내에 보호자의 직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역별로는 군자지구와 반월지구 거주자의 경우 공단내에 직장이 있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과 서울이 각각 37.9%와 10.8%로 나타남으로써 생활권역별로 주거양식이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를 빈도별로 보면 집단유형별로는 대학생이 30.4%로 크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SES별로는 상집단의 경우,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20.5%, 21.6%).

청소년의 생활배경과 관련 종교현황과 가족 유형에 대해서도 문항을 설정했는데 먼저 종교 유무를 보면 응답자의 36.4%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가 가장 많고, 불교 천주교가 각각 그 다음으로 높은 반응빈도를 보였다.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가정할 때 전체의 63.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수로는 부모유무와 결혼 결함가정 여부에 대한 질문(문항번호 97)과 가족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찾아 적는 문항(번호 98)의 두가지를 중심으로 대가족, 핵가족, 결손가정으로 유형화시켰다. 그러나 실제자료 처리에는 주거방법의 자택거주 응답자(문항번호 95, 빈도 873명)만을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응답과 분석의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대가족은 자택거주자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결과 12.6%의 구성비를 보였다.

핵가족은 자택거주자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결손가정의 경우는 자택거주자 중에서 부모이혼, 별거, 사별, 계부 계모관계에 있는 가정으로 한정시켰다. 응답결과 핵가족이 72.9%, 결손가정이 14.4%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그들의 생활양식을 조건지우고 있는 동시에 본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의식과 욕구 및 행동성향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지역내 자원과 서비스의 내용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본의 특성에 이어 이제 본 연구의 본론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청소년의 실태와 사회자원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기로 한다.

III.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행동

여기서는 지역 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해 생활·활동양식, 가치의식과 욕구 및 근린지역학

결과 행동성향 등의 관련 영역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주요사회화 기구인 가정, 학교, 직장,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1. 가치의식과 태도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이란 그들이 자신과 주위의 제반 환경 및 사상(事象)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성향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식, 부모/동료의식, 학교/직장생활의식, 사회의식의 4가지로 나누어 설정된 진술형 문항에 대한 찬성-반대의 척도상에 나타난 반응을 토대로 평정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적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과 근로청소년, 연령과 교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성세대와 학교/직장에 대한 권위를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적 생활의식이 규범적 가치로 내재화되고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지역청소년의 가치의식과 태도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73.7%의 청소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자세로 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상 청소년의 70.4%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76.7%의 청소년들이 성공이나 출세가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노력이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88.8%의 청소년이 정직한 자세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

들은 노력과 능력 및 정직을 규범적 가치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삶에 대한 태도를 청소년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에서 살펴보았는데 83.6%의 근로청소년이 직장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직무에 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에서의 맡은 직무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66.9%로 나타나 맡은 바 직무에 가치를 부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장생활의 만족도에서는 41.2%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대우를 똑같이 해주는 다른 직장이 있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진술문에 49.1%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여 구체적인 직장환경에 현실적 불만족 요인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학생청소년은 현재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8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과 교사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해 각각 87.8%와 66%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자신들 생활의 통제에 관해서 학생은 67.5%가 찬성하는데 비해 근로청소년은 직장의 직장밖 생활에 대해서 61.4%가 통제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의 성인의 통제에 대한 수용과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부모님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청소년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67.1%가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인지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르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의사

소통을 원하는 경향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부모에의 동일시에 있어서도 전체의 49.8%가 긍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학생이 응답율이 30.2%로 가장 낮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의 무조건적 동일시에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의 동일시 경향성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동료집단에의 의존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5.7%의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70.1%가 친구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대화하기 보다는 혼자있기를 좋아한다는 응답은 33.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6.8%의 청소년은 친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친구를 위해 좋지 못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동료집단문화는 규범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이같은 결과는 복적수단에 관한 사회의식에서도 나타났는데 81.5%의 청소년이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76.1%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경향성은 경노의식에서도 나타나 78.9%가 전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적 의식에서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자진해서 한 일이 있다는 응답이 38.5%에 불과하여 규범적 가치를 행동성향으로까지 표출시키지 못함을 나타냈다.

여섯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개인의 내적 행위의 중심 구성체를 이루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 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약간 높지만(55.9%), 근소한 차에 불과하고 무료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응답도 각각 66.1%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무료감이나 소외감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나 대학생에게 “다소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8%와 67.5%로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생활양식과 욕구

지역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시간대와 용돈의 규모, 보수수준, 교육수준, 당면문제와 욕구 및 학교와 직장생활에 관련된 분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생활시간대는 국민학생과 중학생이 유사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근린주구별 통학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안산시내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해 통학시간이 30분이상 1시간까지 소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학수단도 도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2가지로 대별되며 방과후 자습시간은 1~2시간 정도(22.7%) 또는 3시간 이상(26.5%)의 응답이 높았으며 2시간 정도를 친구와 보내고 있었다. 학교청소년과 달리 근로청소년은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84.0%) 30분 정도 걸려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의 기숙사 단지 혹은 공동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잔업을 합쳐 하루 9시간 정도 근무하며(50.6%) 퇴근후 동료들과 2시간정도(43.5%) 어울리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생활시간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과외활동 유무를 알아보았는데 학교에서 보

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학생의 약 과반수(48.1%)가 진학을 위한 과외나 컴퓨터 학원 수강 등을 하고 있다.

둘째로, 청소년의 한달용돈은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6,400원~15,300원 정도로서 군것질이나 학용품 구입 등에 주로 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청소년보다 용돈규모가 더 커 67,500원으로 그 용도에 있어서도 책구입, 교제비용 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평균급료는 290,000원으로 20~30만원 정도가 가장 많은 분포(37.6%)를 나타냈으며, 월 평균 52,000원의 용돈을 주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취미생활과 군것질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성장지가 안산시인 청소년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성장한 청소년보다 용돈규모나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점이 주목된다. 또한 근로청소년 중에는 월급료가 55~75만원 정도의 소득수준이 상당수 있었으며 대체로 근무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이었다.

셋째로 청소년의 97%가 당면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은 학교성적(53.3%)과 장래문제(37.6%) 근로청소년은 자신의 성격과 친구문제, 장래문제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청소년 유형별, 연령별, 사회 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민내용은 개인적 차원에 관련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전체응답자의 74.2%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부모님의 이해부족(18.3%)과 경제적 곤궁(15.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경제적 곤궁에 대한 응답율은 근로청소년

집단에서 높았으며(41.1%) SES별로 하집단의 응답률(40.2%)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와 관련, 결혼가정 청소년의 당면고민은 가정내 변화가 27.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정의 내적·외적환경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넷째로 학습위주, 성적위주의 현실교육 환경의 문제점이 청소년들의 당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청소년의 학교생활은 10대의 경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점과(32.4%) 불량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점이(20.4%)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구조적, 과정적 교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임금(36.9%), 장래성(29.8%), 작업량 과다(21.6%) 인간적 대우(19.5%) 등이 직장생활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으며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그들의 욕구수준 및 기대가치에 맞는 근무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생활양식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부모에의 의존이 약화되고 동료집단과의 관계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같은 경향은 그들의 당면고민에 대한 주요 상의대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의 당면문제나 고민의 주요상담 대상은 친구나 동료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42.3%),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은 그 다음의 빈도를 나타냈다. 더우기 청소년들이 학교성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의 상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은(1.7%),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학생의 전인적 인격성장의 조성자

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당면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당면목표도 상급교 진학이나 실력향상이라고 응답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실력양성이나 진급, 특기연마등에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민거리뿐 아니라 욕구수준이나 그들이 당면목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용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기대 *self fulfilling prophecy*란 관점에서 미래의 청소년상을 제시할 뿐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는 준거들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현재의 교육수준과 기대교육가치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욕구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욕구에서 학력주의 사회의 가치의식의 단면이 반영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47.5%) 또는 대학원(26.3%)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고학력에서의 기대수준은 부모나 주위의 기대가 청소년 스스로의 욕구보다 더 높은 학력 희망율을 나타내고 있어, 기성세대의 학력주의 가치의식이 청소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도달가능한 학력수준간에 원망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고학력 회귀경향은 근로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평균(26.3%)보다 높은 31%의 빈도로 대학원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인물형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성실과 노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는 집단유형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기성세대의 기대가치나 욕구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구조와 환경

청소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환경영역은 가정, 학교/직장, 동료집단, 지역사회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환경의 외적여건과 내적인 구조적 관계성의 두 측면에서 각 영역별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가정환경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성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도 등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낮아지며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비율이(53.4%) 집밖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이라도 어제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한다는 청소년이 50.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2.4%가 중요문제 결정시 자신의 의견이 가정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교육방법이 보다 민주적이며 설명적인 경향이었다.

청소년들의 내적 가정환경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성 정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빈도가 감소되고 있으나 가정내에서는 청소년이 인격체로 의견이 존중받는 동시에 부모-자녀 관계성도 민주적이고 설명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나 직장환경은 가정의 경우와 다른 대조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된다.

즉 가정환경영역에서 62.4%가 자신의 의견

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반면 직장과 학교에서는 62.6%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데 이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발달과정상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나 직장 풍토와 환경여건 등에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직장의 경쟁-협동성에 관한 진술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직장의 풍토가 경쟁보다는 우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성적위주의 학교풍토와 경쟁적이고 비민주적인 직장풍토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평소의 생활지도 관심사도 성적이 52.3%였으며 말씨나 용모 등 품행과 생활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반응이 낮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 동료집단 관계성에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69.3%) 또래 청소년집단의 규범적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근로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서 더욱 뚜렷했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그들의 또래 집단의 소비성향이 높으며 돈을 너무 해프게 쓰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은 학생집단의 경우가 20대 청소년층 보다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소비성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SES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환경은 앞서 분석한 표본의 특성에서 지적된 안산시의 지역적 구조와 근린관계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의 외적·물리적 환경은 약 과반수

정도(54.4%)는 안산이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교통여건과 질서수준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인식도가 높았다.

환경의 우범성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그렇다”는 반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스스로의 지각경향이며 10대청소년에 비해 사회성숙도가 높고 활동이 보다 빈번한 근로청소년 집단에서 환경을 더욱 우범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크게 주목할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내적 구조환경에서는 56.4%의 청소년은 안산시의 주민 대부분이 이전부터 안산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주의사가 있는 청소년도 46.9%로 높게 나타났다. 안산이 유동인구가 많고 이주민 중심도시라는 지역특성 분석과 일치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응답자의 71.1%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지내며 과반수 정도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간에 서로 돕고 지낸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주민구성의 이질성과 높은 이주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지인의 구성비율이 높은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은 지역사회 공동체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주의사와 빈부격차 인식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빈부격차 인식과 이주의사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낮거나 만원지역 거주자의 경우 가장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의 내적환경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 여가생활과 지역중심 활동

지역청소년 생활실태의 또 다른 측면은 여가활동과 지역중심 근린활동 및 단체활동 욕구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는 여가활동을 “비교적 공적 구속력이 없는 자유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보고 지역사회내 문화체육자원과 근린이용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의 참가도와 활동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 라디오청취, 낮잠 등과 같은 피동적이며 정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포츠활동, 단체활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과 같은 자발적, 능동적, 제생산적 가치를 가지는 형태의 활동률은 저조함을 나타냈다.

주요 여가대상은 학교나 직장 및 동네 친구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41.6%), 가족(23.0%) 또는 혼자서(27.3%)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향이었다. 여가대상은 여가활동형태, 청소년집단 유형별 및 SES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족단위 또는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은 TV나 라디오 청취와 같은 여가활동형태와 밀접히 관련된 결과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동료집단 지향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학이나 휴가시 하고 싶은 활동에서는 여행이나 낚시(22.1%) 공부보충(20.8%) 캠핑 등산의 순이었는데 여행이나 낚시, 캠핑, 등산은 주로 국민학생과 근로청소년에서, 공부보충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주로 응답한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는 음악회나 진란회, 영화(연극) 관람 등과 같은 문화활동과 이웃 돕기, 거

리질서 등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을 함께 고려할 때 방학 또는 휴가시 여가활동 욕구는 다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 청소년은 방학기간이 또 다른 형태의 “학습의 연속”이라는 현실을 나타내 주었다.

둘째, 전체응답자의 56.1%는 일주일에 평균 2~3시간 정도(35.7%)를 학교나 직장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인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집단유형별로 보면 연령별, 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근로청소년은 82.2%로 단체활동이나 모임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민학생이 41.8%로 가장 낮았다. 모임 또는 단체활동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창모임(13.1%)이 가장 많고 종교(11.4%) 취미활동(10.6%) 청소년단체나 노동조합활동 등의 4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학생청소년의 청소년단체활동이나 근로청소년의 사회교육활동은 그 욕구에 비해 실제 활동참가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단체활동의 주된 동기는 다양한 경험을 얻고 싶어서(29.4%)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이념과 뜻이 좋아서 등의 순이었다. 활동의 제약요인은 곤란한 점이 없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하고, 비용이나 시간(34.4%), 참여기회의 부족(18.4%) 또는 학교나 부모의 이해부족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는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회사내·외의 사회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동기에서도 29.7%로 높은 반응빈도를 보였다.

교양과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34.8%) 참여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저 회사

에서 하게 되어서 참여하거나, 별다른 동기없이 한다는 응답도 많은데,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행되어야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교육활동에 참가욕구가 있어도 기회가 부족하고, 근무시간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불만을 나타내었다.

넷째로 지역청소년들의 지역중심활동은 지역사회내 사회문화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한 형태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높은 반면, 실제 참여율은 매우 낮으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근린 주변시설이나 업소 등에 대한 이용도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난 한해 동안 실시된 지역사회 중심 활동 프로그램 15가지를 제시하고 각 활동별 참여율을 조사했는데 체육대회, 야영훈련, 수련회 등과 같은 야외체육활동의 응답율이 높으며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봉사 활동의 참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내의 유적지 및 공공시설물의 이용율에서는 “별망성”을 제외한 유적지 이용율은 극히 저조했으며 체육공원, 팔각정 등의 공공시설물의 이용율도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권별 근린주변 시설이나 업소의 이용율에서는 음악감상실, 청소년회관 같은 유익시설의 이용도와 유흥업소나 디스코장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칭되는 곳의 출입율은 낮게 나타난 반면, 다과점이나 영화관 등에는 비교적 출입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주변시설·업소에 대한 출입율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집단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방이나 유흥업소 등에는 출입에 제한이 없는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이용경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락실, 만화가게, 디스코장 등의 출입경험에는 고등학생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흥업소의 출입정도는 대학생집단과 비슷한 경향의 높은 반응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희망하는 관련여가시설에서는 도서관, 독서실, 학원의 희망율이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야영장, 체육시설, 공원과 같은 야외활동시설의 응답율도 33.7%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중심활동육구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시설에 대한 이용증대 방안과 지역사회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실시가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들의 지역중심활동육구도 이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행동성향과 문제점

여기서는 청소년의 행동성향을 일상적 행동양식의 포괄적 의미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행위 유형에 대한 경험유무와 그 정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일탈행위, 문제행동, 비행성향등에 대한 관심 또한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로서의 본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30가지로 설정하고 그 행위정도를 기준으로 잠재적 행동, 문제행동, 비행행동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지표화하여 재산, 은둔, 의도, 폭력 등 행위 유형별,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영역별로 경험유무와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각 범주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잠재적 행동성향의 경험율은 평균 52.4%이며, 음란서적, 음란필름, 어른에 대한 반항, 심야외출, 무단결석(결근) 등 9가지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율은 37.9%, 흥기소지, 자살기도, 폐싸움, 정학, 퇴학 등 14가지의 비행행위 경험율은 5.6%로 나타남으로써 행위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경험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음란서적, 음란필름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적, 은둔적 성격의 문제행동 성향의 경험율이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행행위 중에서 환각제 사용경험율도 5.4%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셋째, 행동성향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정도가 심화되며 비행율이 증가하고 있다. 수업빠지기(70.3%), 지각, 컨닝(65.4%) 무단결석, 결근 등과 같은 학교나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의도적 행위는 대학생 집단의 응답율이 초, 중, 고등학생 보다 크게 높으며, 키스나 포옹, 직접적인 성행위 등 이성교제와 관련된 행동도 근로청소년과 더불어 20대 청소년에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물파손(33.2%), 집단싸움(11.1%)과 같은 사회적, 폭력적 유형의 문제행동성향에 있어서는 20대 청소년 보다 고등학생의 응답율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환각제사용, 무단가출, 불량씨를 가입 등에서도 고등학생의 반응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변인별 교차분석 결과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문제행위 경험율이 높은 경향이며 대체로 SES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경험율이 높다. 흥미로운 점의 하나는 주성장이기 안산시 이외의 도시지역 출신인 외지전입 청소년의 경우 안산사에서 주로 성장한 집단보

다 문제행동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성향인 9가지 행위태의 경험율에서 주성장지 변인에 따른 반응차이가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의 행동성향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비행피해를 당한 경험유무와 피해를 당한 장소 그리고 당시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25.6%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으며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도 15.7%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비행피해 장소로는 “학교(직장) 안” 외에 “한적한 길거리나 골목” “길거리나 놀이터” 등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흥미있는 사실은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롤라스케이트장” “분식집” 등 청소년층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린주변업소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응답율을 보면 불량청소년이 가장 많으며 같은 학교학생(직장동료)나 다른 학교학생(동료)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행행위 경험과 비행피해 경험이 학교나 직장의 동료집단 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번째로 근린주변시설과 청소년들의 행동성향간의 상관관계에 유의하여 근린주변시설/업소의 이용율에 따른 3가지 행위정도별 경험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선도의 차원에서 행정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흥시설 또는 업소인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은 약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유형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업소의 출

입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그들의 비행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검증의 결과와 함께 R^2 을 살펴보면 3가지 행위 정도별 경험을 모두에서 성인용 유흥업소, 다방(경양식집), 만화가게, 전자오락실의 출입빈도가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설명하는 변량비율이 최저 .061에서 최저 .370까지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로청소년이나 대학생 같은 청소년 후기 연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연령에서 일관되게 얻어진 결과라는 점이다<표 2>.

현실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출입경험을 갖고 있는 근린주변업소와 청소년들의 행동성향이 어떤 인관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며 비행행위의 근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입각한 청소년유해환경의 기준설정과 효과적인 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논의된 청소년들의 실태분석과 함께 연구자들이 시도하고자 했던 또 다른 연구 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한 청소년육성여건으로서 지역내 사회적 가용자원과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제공되고 있는지를 실태 파악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구심점을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두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지역단위에서도 욕구와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지역중심 청소년 전전육성방안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진행된

〈표 2〉 군민시설·업소 출입빈도별 잠재행위, 문제행동, 비행행위의 F(R²)

비행정도 시 설	잠 재 행 위	문 제 행 동	비 행 행 위
영화관	55.53*** (.075)	88.20*** (.115)	11.43*** (.017)
전자오락실	65.8*** (.088)	69.41*** (.092)	42.98*** (.060)
사설독서실	14.3*** (.020)	7.56*** (.011)	4.58*** (.007)
다과점	17.2*** (.025)	5.53*** (.008)	.79 (N.S.)
만화가게	71.97*** (.095)	113.25*** (.143)	42.96*** (.061)
레스토랑	55.87*** (.075)	279.07*** (.291)	29.63*** (.042)
다방, 정양식집	78.76*** (.103)	169.14*** (.199)	13.21*** (.091)
과학관, 박물관	.26 (N.S.)	12.34*** (.018)	.24 (N.S.)
볼라스케이트장	25.89*** (.036)	13.56*** (.020)	19.702*** (.0029)
수영장	2.15 (N.S.)	26.23*** (.037)	1.04 (N.S.)
청소년회관	2.26 (N.S.)	5.98*** (.009)	4.57* (.007)
탁구장	37.42*** (.052)	81.82*** (.107)	31.03*** (.044)
음악감상실	15.81*** (.023)	60.05*** (.081)	9.43*** (.041)
음악회장, 전시장	24.54** (.035)	68.20*** (.092)	5.597*** (.008)
성인용 유흥업소	48.04*** (.111)	224.97*** (.370)	69.04*** (.155)

*** P<.001

** P<.05

* P<.01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적 가
용자원의 현황과 서비스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
석한 결과이다.

IV. 사회자원과 서비스실태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은 크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시설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의 단체,
기관은 다시 정부의 행정조직과 재원에 의거한
공공부분과 일반 민간의 개인이나 법인이 조
직, 운영하는 민간부분, 또한 이 양자의 혼합
형태(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별개의 법인으로 운
영하는 형태)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
다. 후자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만을 이용대상
으로 하는 전용시설과 청소년이 이용대상에 포
함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1. 육성추진체계와 공공자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관장하
는 행정부서로는 중앙의 체육부 청소년국 그리
고 서울 및 직할시, 도 단위로는 가정복지국
청소년과가 있다. 그러나 시·군단위로 내려가
면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
지 않아서 안산시의 경우에도 가정복지과(가정
복지제)내에 노인담당, 아동담당과 더불어 청소
년업무 담당 직원이 한명 배치되어 체육부 청
소년국과 도청 청소년과에서 시달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는
결원인채 충원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이 곤란
한 상태이다. 또한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아동담당 직원과 업무대상 연
령층이 중복되기 때문에 담당업무의 명확한 규

정과 보다 합리적인 업무의 분장이 요망되고 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한 가정복지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작년에 조직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각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사회와의 각종 청소년관련사업을 기획·조정·총괄하는 기구이다. 현재 안산시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안산시의 각계 인사 1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 청소년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단 근로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이 2명에 불과하여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재조정이 요망된다. 한편 안산시의 각 행정동 단위로는 16-35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이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청소년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각종 청소년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청소년사업 전반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추진력있는 기구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 가정복지과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외에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 영세가구의 청소년을 위한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비, 가정교육의 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실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안산시가 이처럼 주로 취약계층, 영세가구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안산경찰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청 산하의 사업소로 설치된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대안가족계획협회 안산지부는 만월 및 인근 공단지역의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교양 및 취미교육과 상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안산지역에서 청소년관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조직인 이들 기관은 그 담당업무에 있어서 관행적인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구조의 취약성(전문인력의 결원 및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간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결여이다.

청소년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각기 상이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들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선도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사업은 이들 기관 중 어느 한 곳이 전담하여 관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도 이들 기관들간에 일부 연계관계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관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저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청소년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각 기관간의 연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설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의 기능은 기존의 청소년육

성지방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전문적인 요원을 가진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전달케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앞서 거론한 공공부문 외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관련 각종 민간단체의 사업과 활동도 포괄하여 다루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밖에 안산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각종 공공기관으로는 안산지방노동사무소, 반월공단본부, 안산시문화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그 설립 역사가 일천할 뿐더러 기관의 성격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 사회자원과 청소년 시설

이들 공공부문 기관들의 활동에 비교해 볼 때 안산시의 민간부문의 청소년 유관단체의 활동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안산지역내에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BBS연맹, YMCA, YWCA, 4H연합회 등 각종 청소년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등 청소년 유관단체의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조직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단체의 활동이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을 그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도 안산지역에 특유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라인을 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또한 그 지방 각계인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안산시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성된 인공도시인 관계로 거주인구의 유동성이 매우 높아서 지역사회의 공동체意識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업무추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유기적인 인간관계의 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청소년단체 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직면하여 당초의 의욕과 사명의식이 약화된 채 타성적인 조직운영에 안주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몇몇 민간부문의 청소년 유관단체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안산시문화예술인협의회와 청소년 상담전화인 “천사의 전화”를 들 수 있다.

안산시 성포동에 위치한 예술인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안산시문화예술인협의회는 안산지역의 각기 상이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간의 상호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차원에서 “별망성예술제”라는 지역사회의 축제를 기획하여 지난 해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행사를 거행하였다. 공단 기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행사공간의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이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공업도시 주민들의 일종의 “지역사회 토착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천사의 전화”는 한 지역사회 인사의 발의로 설립되어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전화 상담기관이다. 지방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단위의 전화상담기관으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화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안산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은 아직 도시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공공부문의 복지시설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공단내의 종업원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으나 공단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학생들을 위한 전용시설은 인근 화성군에 설치된 청소년 야영장이 유일한 예이다.

원래 안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면 각 근린주구마다 운동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부지만 확보해 놓았거나 착공만 되어 있을 뿐 완공을 미룬 채 방치되고 있다.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근린공원도 벤치 등 기본적인 휴식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시민체육공원과 제일스포츠센터는 비교적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에 속하나 주거공간으로부터 벗어난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롤라 스케이트장, 전자오락실 등은 주민들 사이에 안산지역의 높은 청소년비행의 온상으로 규정되어 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유희환경의 정비, 단속만으로 청소년비행의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만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시설, 문화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그들을 위한 복지여건을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집단인 학생청소년과 근로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3. 청소년 육성여건과 서비스실태

89년 현재 안산시를 주된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대략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학교로는 국민학교가 1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와 대학교(한양대학교 분교)가 1개교 있다. 이러한 안산시의 학교현황은 안산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설립계획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안산이 국내 유수의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무하여 실업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부득이 외지로 진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의 양적 부족 못지 않게 질적인 수준의 문제도 주민들의 깊은 관심사였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안산시의 학교수준이 인근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녀를 외지의 학교로 진학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학력, 부유층 가정일수록 두드러졌다.

학생청소년들의 생활은 크게 학교안에서의 생활과 학교밖에서의 생활로 구분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들이 과중한 수업부담과 입시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의 커다란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는 안산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대도시에서 전입해 온 고학력의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는 안산시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도 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대한 편이었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편향된 교육풍토는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저해하여 학습 활동 이외의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학생들의 적성개발 및 생활지도의 측면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특별활동시간의 운영과 학생상담활동을 들 수 있다. 하루 일과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별활동시간은 학과수업을 통해서 얻기 힘든 다양한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현행 학교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먼저 시간편성에 있어서 일주일에 1~2시간에 불과하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진학을 앞둔 3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수업시간표에서 제외되거나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현행 교과과정 편제상 특별활동시간만이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다 높은 교육적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최소한 특별활동의 법정 수업일수는 충실히 지켜져야 하고, ②가능한 한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③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자질이 있는 교사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정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단계에 대응하는 특유한 심적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활동도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서 교내에 별도의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것은 학교 상담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과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내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활동이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을 감안할 때 현행 학교상담실이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을 적절히 대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안산지역에 설치된 민간의 전화상담기관인 “천사의 전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천사의 전화의 주 이용층은 안산 및 인근지역의 학생청소년들로서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빚어지는 이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산시의 반월공단 취업근로자 약 8만여명 중 안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수는 대략 2만5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근로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학생청소년들에 비해서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있고 아울러 학력 위주의 임금 및 승진 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기업풍토 속에서 불투명한 자신의 장래에 불안감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확립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체계의 개선은 임금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 안정적인 근무조건의 확립 등 개별산업체 단위에서의 제도개선과 그들의 전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회교육기관 및 문화시설의 건립 등 지역 사회 단위의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안산지역 근로청소년들의 생산현장에서의 근무여건은 다른 공단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볼 때 안산의 반월공단은 산업재해의 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것은 반월공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이들 임주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관계로 산재방지에 투자할 재원염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불어닥친 노사분규의 여파는 안산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조의 결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산재문제는 안산지역 노동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작업조건의 개선과 더불어 근로청소년들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의 인격적, 정서적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근로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의사와는 달리 경제적인 이유에서 상급학교 진학의 길이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교육에의 욕구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의 하루종일 생업현장에 종사하면서 결핍되기 쉬운 정서교육도 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산시에는 공단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개인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대상의 학교가 몇군데 설립되어 있다.

85년에 개관한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반월 및 인근 공단지역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양교육과 정서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반교양교육과정으로 총 15기에 걸쳐 955명의 이수생을 배출하였고 정서함양교육과정의 일환인 취미교육의 경우에는 모두 13개 과목을 39기에 걸쳐 실시하여 1,01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동 회관은 교육자들의 열의와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실적 등의 면에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처우문제, 교육인원의 차출방식, 복지후생시설 등의 측면에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안산지역의 산업체 부설학교는 대부분의 임주기업체들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수요에 비해 그 절대수가 부족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기업체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근로자들이 근무의 부담 때문에 수업의 결손 사례가 잦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안산지역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상담기관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안산지부 청소년상담실이 있다. 동 상담실에서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진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는데, 성

문제에 관한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성문제 상담의뢰자가 아직까지는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급속한 속도로 연소화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담당자의 지적이다. 근로청소년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과 떨어져서 책지에서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가정의 구속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자칫하면 불건한 성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발되고 있는 성문제의 상당부분이 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기관의 존재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비행과 탈선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방치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주체는 성인들로서 청소년들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일부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격리 등 대증적 차원의 처방에서 벗어나 일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단체와 시설들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와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V.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방안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생활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질과 성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진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내의 사회자원과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현황과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중심의 청소년육성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육성 추진 체계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추진하는 중앙의 행정부서는 체육부내의 청소년국으로서 청소년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관련업무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단위로는 서울과 직할시 및 각 도 가정복지국내에 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여기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 청소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체계상으로 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체계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그 실무적인 책임을 체육부(청소년국)와 각 시·도(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육성업무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라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여 관련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즉 동일한 실체를 놓고 그 실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의거하여 각기 상이한 정책목표와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집단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과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관련 업무의 추진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제와 그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상의 자원 및 인력의 낭비는 불가피할 뿐더러 많은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중앙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체육부 청소년국, 시·도 단위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와 시·도 청소년과의 존재는 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장 하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청소년업무를 조정·통괄할 수 있는 주체로서는 전담부서의 부제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청소년 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각종 기관·단체들이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갖지 못한 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기 독자적이고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현행 청소년 육성체계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면 우선 시청단위에서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시청찰서와 교육청·시청간의 직접적인 횡적 유기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문교부 산하의 교육청과 각급학교, 같은 내무부 산하이지만 업무의 기능과 특성을 달리하는 시청과 경찰서, 등록부서가 각기 상이한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청소년 행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기관(단체)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이고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안산시에서의 청소년 업무의 추진은 그 대상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조체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부제로 말미암아 각 기관들간의 직접적인 업무의 연계체제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내 공공부문의 각종 청소년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현재 시·군 단위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그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역사회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안배가 보장되어 있으며,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① 지역별 계획의 수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의 인격형성·심신단련 등에 관한 사항(청소년육성법 제8조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형식적·전시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짧은 역사로 말미암아 아직 그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서는 ① 회의 개최가 일년에 두차례에 불과하여 위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의식과 소속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회의 과정에서 발전적인 의견이 개진된다고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전담부서)를 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기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회의에서 집약된 의견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 및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feedback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요구된다. 그 기능을 우리는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 실무위원회의 시·군단위까지의 확대 설치 및 그 기능의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지역사회내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안배하여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전담부서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하에서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①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심의 및 조정 ② 위원회 결정안건의 사업실행상의 자문 및 평가 ③ 청소년업무에 대한 주민여론의 수렴 및 정책반영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전담부서와 위원회의 활동을 연계·보완하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의 조직화

청소년육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중심 청소년육성을 위한 방안의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는 각종 청소년단체 및 기관 그리고 시설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중 단체 및 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기 독자적인 운영주체와 설립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립주체에 있어서 전용시설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시설은 민간에 의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한 지역사회내에서 이들 사회자원들이 어떤 일관된 청사진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중복 설립되어 있거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존재 양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청소년단체에서는 대부분 중앙에서 시달된 사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그 지역 청소년의 실정과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관련단체들간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인력 및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상설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상설협의체는 지역실정에 따라 다음 두가지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먼저 지역사회내의 각종 청소년유관기관들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청소년지역회의 *community youth council*”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 회의는 지역사회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유관단체들의 상설협의기구로서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이들 기

관들간의 상호연락 및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청소년지역회의”보다 한차원 발전된 형태로서 지역사회내의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들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의 “지역청소년협의회 *community youth association*”의 구성이다.

이 협의체는 민간부문 상호간,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청소년육성조직으로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요원(간사)과 상설공간(사무실)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지역청소년협의회”의 구성은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및 인력 기반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청소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사업은 민간부문의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행정부서 및 기구, 학교, 직장 등 지역사회내의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회부문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때에만 그 실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기구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우선 “청소년지역회의”의 결성과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청소년협의회”의 단계로 이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양 기구의 설립 및 운영의 재원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단체들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의 국고보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몇 가지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의 청소년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자원봉사인력을 모집·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단체에 연계시켜 주는 기능 ② 개별 기관, 단체 단위로는 수행이 곤란한 사업을 협의체 소속단체들의 협조하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능 ③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욕구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능 ④ 앞으로 시행될 지자체하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공의 이익단체로서의 기능.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집단유형을 대상으로 각기 상이한 설립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나 사회기관간의 상호정보교류와 연계체계의 확립을 공식화시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은 다음의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협의체는 독립된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형태로 운영하되, 현행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하고 앞서 제시한 실무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육성위원들의 협의체 참여폭을 늘리며 시청의 청소년전담부서를 통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협의체의 실무대표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역사회 인사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참여폭을 넓혀 유기적 협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와 동인을 제공하는 참여의 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협의체의 사업의 기본성격은 지역주민

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역사회내 청소년 선도·유해환경의 정화 및 애향심 고취 시민운동 전개, 지역고유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 등 지역단위의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을 파악·진단하고 제반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가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재편성 방안과 그 기본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제 앞에서 논의된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방안의 내용을 요약,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맺기로 한다.

[제안 1] 시·군단위의 청소년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업무를 조정·통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관련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및 일관성있는 청소년업무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2]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시·군 단위로까지 확대 설치하여 전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전담부서가 시·군 단위에까지 설치된다고 해도 지역사회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부문의 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각종 자생적인

조직을 육성하는 기능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전제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제안 3] 지역사회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청소년을 위한 기관·단체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청소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의 구성이 요청된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우선 지역사회내에 각종 청소년유관기관들의 공식적 협의기구로서 “청소년지역회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독자적인 사업추진 모체로서의 상설기구인 “지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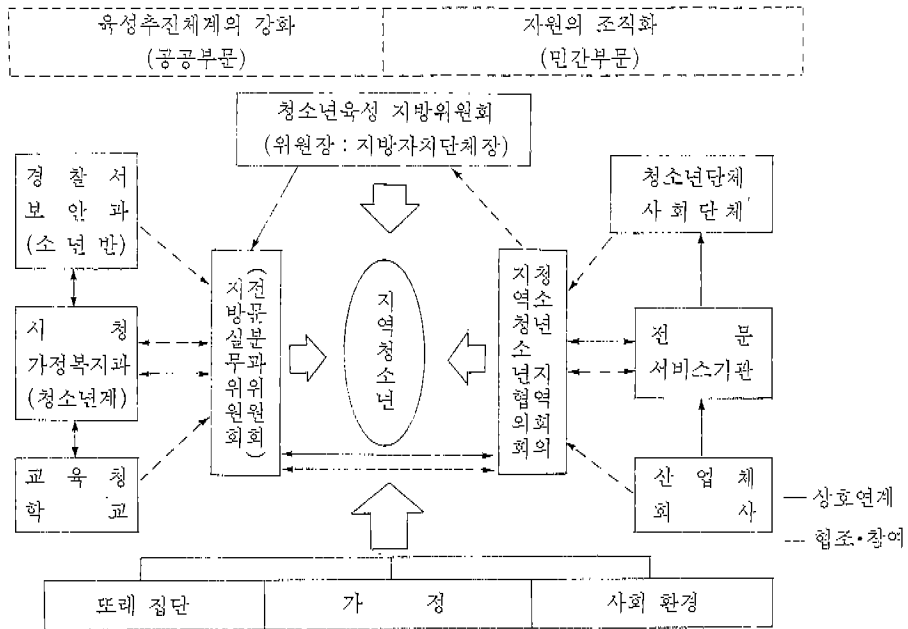
이상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중심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본모형을 정리하여 도식해보면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청소년협의체는 ① 지역사회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의 상호연계 ②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이란 두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다.

지역중심 청소년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지역청소년협의체의 구상은 지역사회내 제반 사회자원과 고유자원의 합리적인 재편성과 상호 연계체계를 공식화해 주는 동시에 지역내 청소년사업실행주체를 지역단위에서부터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의 현실적 설립·운영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과 특성에 따른 설립형태, 재정확보 방안, 인원충원방식, 사업내용 및 조직·기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영역별, 부분별 연계망의 형성은 “지역

[그림 2] 지역중심 청소년육성 기본모형



청소년협의체"라는 전문상설기구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게 될 때 지역단위 청소년 육성 사업추진 모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도시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중소규모의 인공도시로서의 안산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각종 정책적 대안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된다. 특히 청소년육성 추진 체계의 강화와 자원의 조직화란 두 측면에서 전개된 지역중심 청소년 육성방안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각 지역사회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행할 경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

용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수립은 해당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분석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내에서 기능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존 사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중심 청소년육성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상설협의체의 구상과 논의는 원칙론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현실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입각하여 조직·기구·사업내용·재정확보 방안 등의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보다 효과적인 지역중심 청소년육성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tudy on the Community-Living Youth : for a Model of Their Good Caring — A Case of Ansan Area —

Hyun, Choe,
Jeong-Woong, Cheon
Chong-Won, Yi
Sang-Suk, Lim

Local administration office has more useful and current information prepared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Those information are inevitable for youth policy makers to implement and develop a community-centered youth support system. Under a central-government controlled society, however, specific information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can be easily neglected and disregarded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evelopment plan. A planned city, Ansan, has industrial suburbs for manufacturing. During the last 10 years, from 1976 to the end of 1988, population of the city reached to about 180,000 from about 20,000 because of the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parts of the country to find jobs. A majority of them are youth ; however, youth policy to provide services such as asking their needs, administrative support and organizing support system is under-developed.

To develop support systems for youth in the area,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

1. the community environment related to the youth living Ansan area.

2. their life style and value system.
3. community assets which is useful for them.
4. service delivery system and
5. finally, develop a good caring model for the community-living youth based on the data gathered from the community.

The research sample consists of 1396 people (male 613 : female 783), who are educationist, specialists, social workers, counsellors, and stude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

1. Ansan a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ricts such as traditional farm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zone. Each district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life style, value system, socio-economic status, grown-up background, family relationship, living environment, etc.
2. Youth center, sports center, parks, public libraries are ready to use and some are under construction, but need much more facilities for youth. Furthermore, existing facilities should be

used more efficiently.

3. The role of youth service organizations needs to be enhanced to perform coordinating function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ir own concerns. A control system will be helpful for a better coordination of each organization according to its functions and specialties.
4. Hidden local like cultural remains are still covered to the public, especially to the community-living youth.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made from the reserach results :

1. A coordinating system such as "Community youth Council", or "Community Youth Association"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local govern-

ment and citizen's Youth organizations.

2. Citizen's youth organizations should work out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Youth Association" according to their special function and specialty.
3. Community youth council and citizen's youth organizations should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ly, volunteer groups and specialists who can help youth and their problems.
4. Youth service deliverl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local to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5. Local historical sites and other cultural assets should be found and informed to the public, youth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